

한국배우 첫 아카데미상 수상 '희망의 신호들'



5일 오전(한국시간) 미국배우조합상의 비대면 시상식이 열린 가운데 영화 '미나리'의 윤여정이 여우조연상 수상자로 호명되자 놀라움 속에 두 손을 양볼에 가져다대며 감격스러워하고 있다. AP·뉴시스

미국배우조합상 '여우조연상' '미나리' 윤여정 감격의 눈물

- 1 세계적 영화전문지들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예상
- 2 미국배우조합상 수상자, 아카데미상 수상 많아
- 3 1월 OTT 공개 후 미국서 많이 본 콘텐츠 2위

자신의 이름이 불리자 배우 윤여정은 놀란 표정 속에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두 손을 모은 뒤 다시 얼굴에 손을 가져다대는 모습에선 감격스러움이 한껏 묻어났다. 윤여정은 “어떻게 기분을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정말 많이 영광스럽다. 특히 동료 배우들이 수상자로 선택했다는 점에서 더욱 감격스럽다”는 울먹임의 소감을 밝혔다. 그런 그를 두고 외신들은 “아카데미상 결과도 같을 것”이라는 기대 섞인 관측을 내놨다.

윤여정이 5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미국 LA에서 비대면 사전 녹화돼 온라인으로 송출된 미국배우조합상(SAG) 시상식에서 영화 '미나리'로 여우조연상을 거머쥔 순간이다. 지난해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최고상인 앙상블상을 받았지만, 한국배우가 연기상을 받기는 처음이다. 그만큼 또 하나의 역사적 기록인 셈이다. 그의 눈물과 감격이 시상식을 지켜본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은 것도 그 덕분이다.

외신도 마찬가지였다. 이날 윤여정의 수상 소식에 세계적인 영화전문지 버라이어티는 “26일 제93회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여우조연상 수상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또 다른 영화전문 매체 인디와이어도 “극중 감동적인 연기를 펼친 한국의 베테랑 윤여정의 수상은 결코 놀랍지 않다”면서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도 같은 결과를 얻어 마땅하다”고 썼다.

실제로 미국배우조합상 시상 결과는 이후 열리는 아카데미상의 유력한 '가늠자' 가운데 하나로 꼽혀왔다. 미국배우조합은 미국배우들의 단체로, 이들은 아카데미상 투표권을 지닌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 회원 중 가장 비중이 높다. 또 미국배우조합상 수상자(작)가 아카데미상을 받는 사례가 많았다는 점도 윤여정의 수상 가능성을 높게 점치게 한다.

영화 자체에 대한 현지 호평도 힘을 더한다.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비롯해 작품·감독상(정이삭 감독)과 남우주연상(스티븐 연) 등 6개 부문에 후보로 오른 '미나리'는 미국 OTT(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를 통해 1월 공개돼 5일 현재 '전 세계 많이 본 콘텐츠' 8위를 지키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2위를 차지하며 영화에 대한 대중적 호감도가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영화 '미나리'는 1980년대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 농장의 꿈을 키우는 한인가족의 좌절과 희망을 그린 이야기이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비거리 363야드...LPGA 22세 괴물루키 타와타나깃은 누구? ▶ 2면



스포츠동아

2021년 4월 6일 화요일
www.sportsdonga.com

“조용히 합의 하자” vs “FIFA에 물겠다”

입장 바꾼 수원 삼성-전북행 백승호, 이적 논란 새 국면

14억대 손배소송 주장하던 수원 최고위층이 합의 위해 직접 나서 지원금 등 4억에 사과 영상 요구 실무 직원과의 엿박자 가능성도

K리그1(1부) 수원 삼성은 다름슈타트(독일 2부)를 떠나 전북 현대에 입단한 백승호(24)와 합의를 시도 중이다. 즐거차게 '소송전'을 예고했던 강경한 자세가 한 풀 꺾인 모양새다.

양측 사정을 아는 축구인들은 5일 “수원 구단이 백승호측에 합의를 제안했다. 선수가 FC바르셀로나(스페인) 유학 시절 지원한 금액(3억 원)을 포함한 4억 원과 사과 영상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백승호는 수원 유스인 매단중 입학 직후인 2010년 3월 바르셀로나 유스로 떠나는 과정에서 첫 합의를 쓰고, 3년간 매년 1억 원씩을 교육비·생활비 형태로 지원받았다. 그 후 바르셀로나와 계약이 연장되고 매단고 진학이 어려워지자 2013년 초 2차 합의를 썼다. 여기에는 “방법·시기와 관계없이 수원에 입단하며, 위반 시 지원비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달 17일 백승호 부모와 만난 수원 오동석 단장이 먼저 “다름슈타트로 돌아가거나 3억 원을 반납하라”며 손해배상(플러스알파)을 요구했다. 그리고 지난달 26일 ‘영입이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렀다’는 공문을 선수측에 보내고 3일 뒤에는 구체적 액수를 꺼냈다. 지원금 3억 원과 법정이자(5%) 1억2000만 원, 선수 권리 포기로 인한 예상 손실분(백승호 이적료)에 해당하는 금액(10억 원) 등을 합해 약 14억 원을 제시했다. 백승호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달 30일 전북 입단을 확정했다.

백승호의 전북행에는 문제가 없다. 한국프로축구연맹도 ‘선수 등록이 가능하



최근 전북 현대에 입단한 백승호에 대해 줄곧 소송 의지를 보이던 수원 삼성이 갑자기 합의를 제안한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이와 별개로 백승호측은 이번 이적을 둘러싼 논란이 유소년의 근간을 흔든 행위인지 등에 대해 국제축구연맹(FIFA)에 질의할 계획이다.

사진제공 | 전북 현대

FIFA 질의 입장문 공개한 백승호 유소년 시절 수원행 합의 구속력 유소년 근간 파괴 행위 여부 핵심 수원 플러스 10억 요구 타당성도

다'는 유권해석을 내려줬다. 반면 수원은 선수의 계약불이행에 대한 소송(민사)을 계속 언급했는데, 최근 기류가 바뀌었다. 무슨 영문인지 갑작스레 합의를 시도했다. 실제 수원 최고위층이 전북, 선수측과 연락해 '조용한 마무리'와 같은 합의성 제안을 했다. 여기서 4억 원과 사과 영상 등이 조건으로 나온 가운데 원만한 협의가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한다.

다만 일각에선 '합의'를 얘기한 수원 구단 윗선과 '소송'을 언급했던 실무직원 사이의 엿박자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내부입장조차 정리하지 않은 채 각기 다른 말을 했다고 볼 수 있어서다. 이 담당자는 '서로의 말이 왜 다르냐'는 물음에 “소송은 시간이 길고, 합의는 갈등을 마무리할 방안이라 의견을 나누고 있다. 결정된 건 없다”는 엉뚱한 답을 했다.

이와 별개로 백승호측은 국제축구연맹(FIFA)에 질의를 준비하고 있다. 선수측은 2일 FIFA 질의를 담은 입장문을 공개했다. 핵심은 크게 2가지다. ▲프로가 아닌 유스 시절의 합의가 어느 정도 구속력이 있는지 ▲유스팀(매단중)에 1개월 남짓 머문 뒤 수원에 입단하지 않은 것이 유소년체계의 근간을 파괴한 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다.

또 수원이 최초 합의조건으로 전한 10억 원 규모의 '플러스알파' 금액에 대한 부분도 FIFA에 확인받을 필요가 있다. 수원이 백승호측과 만난 자리에서 구단이 입은 손해의 기준을 당초 전북과 다름슈타트가 합의한 이적료 수준으로 봤다면, 선수의 지분을 요구한 것으로 비쳐질 소지가 있어 확실한 체크가 이뤄져야 한다.

남창현 기자 yoshike3@donga.com



KMGM
HOLD'EM & EVENT PUB

KMGM 홀덤 이벤트펍 ROAD SHOP 런칭

외식 유통 프랜차이즈 KMGM에서 미래를 함께하실 점주님을 모집합니다.

▶ 30평미만으로 창업 가능 ▶ 1억미만 소자본 창업 ▶ 업종변경가능

창업상담 : 1644-7861